

엇갈린 고용 흐름...지역 경기 온도차 ‘뚜렷’

호남통계청 ‘2025년 10월 고용동향’

광주 취업자 전년비 2만6천명 증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2천명 ↑

전남 농림어업 취업 2만7천명 감소

광주와 전남의 10월 고용지표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광주는 전년 같은 달보다 취업자가 늘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전남은 일부 산업의 부진으로 취업자 수가 줄며 감소세를 기록했다.

12일 국가데이터처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10월 고용률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2.2%포인트(p) 상승했고 취업자는 79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6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3%로 0.3%p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1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2천명·6.6%) ▲전기·운수·통신·금융업(6천명·7.2%) ▲건설업(2천명·2.3%) 등이 증가세를 보였고 ▲농림어업(-4천명·-20.3%)은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60

만1천명으로 1만5천명(2.6%) 증가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7만9천명으로 8천명(4.4%) 늘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2시간으로 0.6시간 감소했다.

반면 전남은 고용 지표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전남의 10월 고용률은 66.2%로 전년보다 0.3%p 하락했다.

취업자는 100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천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3%로 0.2%p 하락했다. 실업자는 2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2만1천명·31.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2천명·3.5%)이 증가했지만 ▲농림어업(-2만7천명·-12.6%) ▲도소매·숙박·음식점업(-7천명·-3.6%) ▲건설업(-6천명·-7.3%)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취업 시간대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7만3천명으로 1만명(-1.3%) 감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8만3천명으로 6천명(2.3%) 증가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7.8시간으로 0.1시간 감소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의 취업자 수는 최근 3개월 연속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지난 8월부터 각각 2만명, 1만9천명, 2만6천명 증가한 반면 전남은 같은 기간 8천명, 3천명, 3천명 감소하며 고용 지표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안태호 기자



광주신세계 “수험표 지참하면 할인”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밝힌 12일 ‘크록스’ 매장에서 직원이 수험표 지참 고객에게 30% 할인을 제공하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HDEX’는 20%, ‘푸마’는 러닝상품을 20~30%, ‘언더아머’는 10~30% 할인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아동 복지 향상 앞장...‘따뜻한 금융’ 실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천만원 후원

서구 지역아동센터 4개소 환경 개선

광주은행은 12일 “전날 광주 서구청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사업을 위한 후원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광주은행 이상재 부행장, 김이강 서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금은 서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의 환경 개선에 사용됐다. 아동의 안전을 위한 방범 벽지 및 장판 교체를 비롯해 학습용 책상·의자 교체, 생활공간 내 수납시설 및 싱크대 개보수 등 시설 전반의 환경을 정비했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광주은행이 2015년



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열악한 돌봄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올해에만 총 4억2천만원을 투입

해 광주·전남 지역 47개 아동센터를 개보수했으며, 지금까지 총 177개소의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광주은행 이상재 부행장은 “아동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지역 향토은행으로서 아동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 및 소외계층 청년,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캠프 개최, 학습비 및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임재만 기자

국민연금 광주본부, 31사단 입영문화제 참여 현장 홍보

퀴즈풀기 등 국민연금제도 이해 도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2일 “전날 광주북구 소재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시행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에 참여해 입영장정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군 복무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입영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축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입영자와 가족들에게 ‘감사와 소통의 시간’이 돼오고 있다.

입대를 축하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군복무 크레

딧, 보혐료 지원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퀴즈풀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입영자와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제도홍보를 실시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를 방문한 A가 측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직접 현장으로 나와 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줘 그동안 막연했던 불신이 해소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실명진 광주지역본부장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청년세대에게 더욱 국민연금이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 안전수칙

지붕 추락사고 핵심 예방 대책

- 하루나 작업 중 반드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 돌이나 취약한 지붕재 위 덮개 또는 발판 설치
- 셋! 덮개 또는 발판 설치 곤란 시,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산자부 우수디자인 작품에 지역 기업 3건 선정

오른디자인·블랑스톤·킨더르 제품 호평

광주지역 기업들의 우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12일 “2025 우수디자인(GD·Good Design) 상품에 지역기업이 출

품한 우수상품 3건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 행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인증 GD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일환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공모전 출품 등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오른디자인이 디자인한 수다 도자기의 찻잔세트 ‘한음채’를 비롯해 ▲블랑스톤의 자석형 트리샤 스푼·포크 세트 ▲킨더르의 프리미엄 모델형 놀이가구 ‘라라브릭’이 2025GD 상품에 각각 선정됐다. /안태호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남도의 산해진미가 가득한 강진오일장터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강진군

광고문의 : 062)650-2099